

道 德 經

도덕경

제 73장 — 제 81장

원문 해석 및 철학적 분석

목 차

- I. 개요 및 도덕경 후반부 특징
- II. 제 73장 — 용감함과 부드러움의 역설 — 天之道
- III. 제 74장 — 죽음의 위협과 법의 한계 — 民不畏死
- IV. 제 75장 — 착취와 욕망의 폐해 — 民之飢
- V. 제 76장 — 부드러움과 강함 — 柔弱者生之徒
- VI. 제 77장 — 천도의 균형 — 損有餘補不足
- VII. 제 78장 — 물의 역설 — 天下莫柔弱於水
- VIII. 제 79장 — 원망의 해소와 천도의 공평함 — 和大怨
- IX. 제 80장 — 소국과민의 이상향 — 小國寡民
- X. 제 81장 — 도덕경의 결론 — 信言不美
- XI. 73~81장 종합 분석 및 결론

I. 개요 및 도덕경 후반부 특징

도덕경(道德經)은 노자(老子)의 사상을 담은 81장으로 구성된 도가(道家)의 핵심 경전입니다. 전반부(1~37장)가 주로 도(道)의 형이상학적 본질을 탐구하는 '道經'이라면, 후반부(38~81장)는 덕(德)의 실천과 정치·사회적 함의를 다루는 '德經'입니다.

특히 73~81장은 도덕경의 '마지막 9장'으로서, 노자가 앞서 전개한 모든 사상을 종합하고 실천적 결론으로 이끌어 나가는 구간입니다. 이 장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집니다.

- ◆ 천도(天道)의 원리 — 자연적 질서와 인과율의 우주적 작동
- ◆ 정치철학 — 강압 통치의 한계와 무위지치(無爲之治)의 이상
- ◆ 역설적 진리 — 유약(柔弱)이 강강(剛強)을 이기는 원리
- ◆ 이상적 공동체론 — 소국과민(小國寡民)의 사회상
- ◆ 언어·인식론 — 正言若反(정언약반)의 도가적 역설 언어관

II. 제 73 장 — 용감함과 부드러움의 역설 — 天之道

▶ 원문 및 직역

원문 (原文)	직역 (直譯)
勇於敢則殺，	감히 행하는 데 용감하면 죽임을 당하고，
勇於不敢則活。	감히 행하지 않는 데 용감하면 산다.
此兩者，或利或害。	이 두 가지는 어떤 것은 이롭고 어떤 것은 해롭다.
天之所惡，孰知其故？	하늘이 싫어하는 것을, 누가 그 까닭을 알겠는가?
是以聖人猶難之。	그러므로 성인도 오히려 이를 어렵게 여긴다.
天之道，不爭而善勝，	하늘의 도는 다투지 않으면서도 잘 이기고，
不言而善應，	말하지 않으면서도 잘 응하며，
不召而自來，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오고，
緝然而善謀。	느슨한 듯하면서도 잘 도모한다.
天網恢恢，疏而不失。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놓치는 것이 없다.

▶ 해석 및 철학적 분석

73장은 '용기'의 두 가지 측면과 '천도(天道)'의 섭리를 대비시킵니다. 무모하게 강행하는 용기는 죽음을 부르고, 물러서는 데 용감한 역설적 용기야말로 생명을 보존한다는 역설적 진리를 제시합니다. 핵심 개념: '천망(天網)' — 하늘의 그물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광대하지만, 어떤 것도 그 결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는 인과응보(因果應報)의 필연성과 도(道)의 자연스러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철학적 함의: 노자는 인간의 '역지로 하는 용기[敢]'와 하늘의 '무위적 작용'을 대조합니다. 성인(聖人)조차 천도의 오묘함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고백함으로써, 인간 이성의 한계와 도(道)의 초월성을 강조합니다.

▶ 핵심 용어 해설

핵심 용어	의미 및 철학적 함의
勇於敢 (용어감)	적극적으로 나서는 용기 — 무모한 강행
勇於不敢 (용어불감)	물러서는 용기 — 역설적 생존의 지혜
天網恢恢 (천망회회)	하늘의 그물은 광대무변함 — 도덕적 인과율의 우주적 규모
疏而不失 (소이불실)	성기지만 놓치지 않음 — 도의 정밀한 운행

Ⅲ. 제 74 장 — 죽음의 위협과 법의 한계 — 民不畏死

▶ 원문 및 직역

원문 (原文)	직역 (直譯)
民不畏死，奈何以死懼之？	백성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찌 죽음으로써 그들을 위협하겠는가?
若使民常畏死， 而為奇者，吾得執而殺之，孰敢？	만약 백성으로 하여금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자를 내가 잡아 죽인다면, 누가 감히 하겠는가?
常有司殺者殺。	항상 죽임을 담당하는 자(司殺者)가 있어 죽인다.
夫代司殺者殺， 是謂代大匠斲。	무릇 죽임을 담당하는 자를 대신하여 죽이는 것은, 이는 훌륭한 목수를 대신하여 나무를 깎는 것과 같다.
夫代大匠斲者，希有不傷其手矣。	무릇 훌륭한 목수를 대신하여 나무를 깎는 자는, 그 손을 다치지 않는 자가 드물다.

▶ 해석 및 철학적 분석

74장은 강압적 통치의 근본적 한계를 폭로합니다. 죽음의 공포를 정치적 수단으로 남용하는 통치자에게 노자는 준엄한 경고를 내립니다.

'사살자(司殺者)'의 개념: 죽음을 관장하는 것은 하늘의 도(天道), 즉 자연적 질서입니다. 이 역할을 통치자가 자의적으로 대신하려 할 때, 그는 마치 숨씨 없는 자가 명장의 일을 빼앗는 것처럼 스스로 상처 입게 됩니다.

정치철학적 함의: 이 장은 노자 정치사상의 핵심인 '무위지치(無爲之治)'를 죽음의 문제로 확장합니다. 공포정치는 일시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민심이 극단에 달하면 죽음마저 두렵지 않은 상태(民不畏死)에 이르러 통치 자체가 붕괴된다는 역사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 핵심 용어 해설

핵심 용어	의미 및 철학적 함의
民不畏死 (민불외사)	백성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음 — 극단적 억압의 결과
司殺者 (사살자)	죽임을 관장하는 자 — 천도(天道), 자연적 인과율
代大匠斲 (대대장착)	명장을 대신해 나무 깎기 — 월권(越權)의 위험성 은유

IV. 제 75 장 — 착취와 욕망의 폐해 — 民之飢

▶ 원문 및 직역

원문 (原文)	직역 (直譯)
民之飢，以其上食稅之多，是以飢。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그 위에서 세금을 많이 먹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굶주린다.
民之難治，以其上之有為，是以難治。	백성이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그 위에서 유위(有爲)하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다스리기 어렵다.
民之輕死，以其上求生之厚，是以輕死。	백성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 위에서 삶을 두텁게 구하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
夫唯無以生為者，是賢於貴生。	무릇 오직 삶을 위함이 없는 자, 이것이 삶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현명하다.

▶ 해석 및 철학적 분석

75장은 간결하면서도 날카로운 사회 비판입니다. 세 가지 사회적 문제—기근, 통치 불능, 죽음 경시—를 모두 지배층의 탐욕과 유위(有爲)에서 찾습니다.

3중 인과관계 구조:

- 위가 탐욕스러울수록 → 백성이 굶주린다
- 위가 많이 간섭할수록 → 다스리기 어려워진다
- 위가 삶에 집착할수록 → 백성이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

마지막 구절의 역설: "삶을 위함이 없는 자가 삶을 귀하게 여기는 자보다 현명하다"는 명제는, 삶에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이 가능하다는 도가의 역설적 생사관을 집약합니다.

▶ 핵심 용어 해설

핵심 용어	의미 및 철학적 함의
食稅 (식세)	세금을 먹음 — 지배층의 착취

有為 (유위)	인위적 행위 — 무위(無爲)의 반대, 과도한 통치 개입
求生之厚 (구생지후)	두터이 삶을 구함 — 지배층의 생에 대한 집착과 탐욕
無以生為 (무이생위)	삶을 목적으로 삼지 않음 — 집착 없는 자연스러운 삶

V. 제 76 장 — 부드러움과 강함 — 柔弱者生之徒

▶ 원문 및 직역

원문 (原文)	직역 (直譯)
人之生也柔弱，其死也堅強。	사람이 살아 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으면 굳고 강해진다.
草木之生也柔脆，其死也枯槁。	풀과 나무가 살아 있을 때는 부드럽고 여리지만, 죽으면 말라 딱딱해진다.
故堅強者死之徒， 柔弱者生之徒。	그러므로 굳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이다.
是以兵強則滅， 木強則折。	그러므로 군대가 강하면 멸망하고, 나무가 강하면 꺾인다.
強大處下，柔弱處上。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처하고, 부드럽고 약한 것이 위에 처한다.

▶ 해석 및 철학적 분석

76장은 노자 철학의 가장 아름다운 역설 중 하나입니다. 삶과 죽음, 부드러움과 강함의 관계를 자연 현상으로부터 추론합니다.

관찰에서 원리로: 살아있는 것은 모두 부드럽고(柔), 죽은 것은 굳어있다(堅). 이 단순한 자연 관찰이 "유약(柔弱)이 강강(剛強)을 이긴다"는 도가의 핵심 역설로 확장됩니다.

군사적·정치적 함의: 군사력의 강함이 오히려 패망을 부르고, 나무의 단단함이 꺾임의 원인이 됩니다. 이는 유연한 외교와 부드러운 통치가 결국 더 오래 지속됨을 의미합니다.

우주론적 위계: 마지막 구절 "강대(強大)는 아래에, 유약(柔弱)은 위에"는 도가의 가치 체계를 압축합니다. 물이 낮은 곳에 고이지만 결국 돌을 이기듯, 부드러움의 힘이 최종적으로 승리합니다.

▶ 핵심 용어 해설

핵심 용어	의미 및 철학적 함의
柔弱 (유약)	부드럽고 약함 — 생명력과 유연성의 상징
堅強 (건강)	굳고 강함 — 죽음과 경직성의 상징
生之徒 / 死之徒	삶의 무리 / 죽음의 무리 — 존재의 두 방향
兵強則滅 (병강즉멸)	군대가 강하면 멸망함 — 강함의 역설

VI. 제 77 장 — 천도의 균형 — 損有餘補不足

▶ 원문 및 직역

원문 (原文)	직역 (直譯)
天之道，其猶張弓與？	하늘의 도는, 마치 활을 당기는 것과 같지 않겠는가?
高者抑之，下者舉之；	높은 것은 누르고, 낮은 것은 들어 올린다.
有餘者損之，不足者補之。	남는 것은 덜고, 부족한 것은 채운다.
天之道，損有餘而補不足。	하늘의 도는, 남는 것을 덜어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人之道，則不然：損不足以奉有餘。	사람의 도는, 그렇지 않으니: 부족한 것을 덜어 남는 것을 받는다.
孰能有餘以奉天下？唯有道者。	누가 남는 것으로서 천하를 받들 수 있겠는가? 오직 도(道)가 있는 자뿐이다.
是以聖人爲而不恃，	그러므로 성인은 행하되 자랑하지 않고,
功成而弗居。	공을 이루되 그곳에 머물지 않는다.
其不欲見賢。	그는 자신의 현명함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 해석 및 철학적 분석

77장은 천도(天道)와 인도(人道)를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활을 당기는 은유가 탁월합니다—활을 쏘려면 높은 쪽은 누르고 낮은 쪽은 들어 수평을 맞춰야 하듯, 하늘의 도는 과잉과 결핍을 균형 잡습니다.

천도 vs 인도의 대비:

- 천도(天道): 有餘를 덜어 不足을 보충 → 균형과 평등의 원리
- 인도(人道): 不足을 더 덜어 有餘를 더 채움 → 불평등의 심화

이 장은 노자의 경제·사회 사상의 핵심입니다. 자연의 원리는 재분배(redistribution)인 데 반해, 인간 사회의 관행은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의 역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성인의 역할: 도를 체득한 성인만이 천도의 원리를 따라 잉여로써 천하에 봉사할 수 있으며, 그것도 공(功)을 내세우지 않는 방식으로 합니다.

▶ 핵심 용어 해설

핵심 용어	의미 및 철학적 함의
張弓 (장궁)	활을 당김 — 천도의 균형 잡는 작용의 비유
損有餘補不足 (손유여보부족)	남는 것을 덜어 부족한 것을 보충 — 천도의 평등 원리
損不足以奉有餘 (손부족이봉유여)	부족한 것을 덜어 남는 것에 바침 — 인간 사회의 불평등 구조
為而不恃 (위이불시)	행하되 자랑하지 않음 — 성인의 무위적 행위

VII. 제 78 장 — 물의 역설 — 天下莫柔弱於水

▶ 원문 및 직역

원문 (原文)	직역 (直譯)
天下莫柔弱於水，	천하에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而攻堅強者莫之能勝，	그러나 굳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 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으니,
以其無以易之。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弱之勝強，柔之勝剛，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기는 것을,
天下莫不知，莫能行。	천하에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실행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是以聖人云：	그러므로 성인이 말하기를：
受國之垢，是謂社稷主；	'나라의 더러움을 받아들이는 자, 이를 사직(社稷)의 주인이라 한다.
受國不祥，是為天下王。	'나라의 불상(不祥)을 받아들이는 자, 이를 천하의 왕이라 한다.'
正言若反。	바른 말은 반대처럼 들린다.

▶ 해석 및 철학적 분석

78장은 노자 철학의 가장 역설적인 정치 명제를 담고 있습니다. 물(水)의 은유는 도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이미지입니다.

물의 역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물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돌을 뚫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이 원리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식과 실천 사이의 간극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정치적 역설 — 지도자의 조건: "나라의 더러움(垢)과 불상(不祥)을 받아들이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라는 명제는 충격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겸손의 미덕이 아니라, 구조적 취약성과 사회적 상처를 기꺼이 떠안는 지도자의 본질적 역할을 뜻합니다.

마지막 구절 '正言若反(정언약반)': "바른 말은 반대처럼 들린다"—이 한 문장은 도덕경 전체의 언어

관이자 인식론을 요약합니다. 역설(paradox)이 도가적 진리의 형식 자체입니다.

▶ 핵심 용어 해설

핵심 용어	의미 및 철학적 함의
莫柔弱於水 (막유약어수)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음 — 유약의 극한
受國之垢 (수국지구)	나라의 더러움을 받아들임 — 진정한 지도자의 조건
正言若反 (정언약반)	바른 말은 반대처럼 들림 — 도가적 역설의 언어론

Ⅷ. 제 79 장 — 원망의 해소와 천도의 공평함 — 和大怨

▶ 원문 및 직역

원문 (原文)	직역 (直譯)
和大怨，必有餘怨；	큰 원망을 화해시키면, 반드시 남은 원망이 있으니,
報怨以德，安可以為善？	원망을 덕으로 갚는 것이, 어찌 좋을 수 있겠는가?
是以聖人執左契，	그러므로 성인은 왼쪽 증서(左契)를 쥐고,
而不責於人。	남을 탓하지 않는다.
有德司契，無德司徹。	덕이 있는 자는 증서를 관장하고, 덕이 없는 자는 세금(徹)을 관장한다.
天道無親，常與善人。	하늘의 도는 사사로움이 없어, 항상 선한 사람과 함께 한다.

▶ 해석 및 철학적 분석

79장은 원망(怨)의 문제와 천도의 공평성을 다룹니다. 분쟁 해결의 철학과 도덕적 책임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좌계(左契)의 은유: 고대 중국에서 계약서는 둘로 나뉘어 채권자가 왼쪽(左契)을, 채무자가 오른쪽을 가졌습니다. 성인은 왼쪽 증서—즉 받을 권리—를 가지면서도 강요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는 무위(無爲)의 방식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함을 상징합니다.

화대원(和大怨)의 역설: 큰 원망은 아무리 화해해도 잔여 원망이 남습니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원망이 생기기 전에 덕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천도무친(天道無親): 하늘은 편애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선한 자와 함께 합니다. 이는 도덕적 질서의 자연성—강제 없이도 선이 번성한다는 낙관적 도가적 세계관을 표현합니다.

▶ 핵심 용어 해설

핵심 용어	의미 및 철학적 함의
-------	-------------

和大怨 (화대원)	큰 원망을 화해시킴 — 그러나 근본 해결이 안 됨
左契 (좌계)	왼쪽 계약서 — 채권자의 권리, 강요 않는 성인의 덕
天道無親 (천도무친)	하늘의 도는 사사로움이 없음 — 공평한 자연적 질서
常與善人 (상여선인)	항상 선한 사람과 함께 함 — 도덕적 세계관

IX. 제 80 장 — 소국과민의 이상향 — 小國寡民

▶ 원문 및 직역

원문 (原文)	직역 (直譯)
小國寡民，	나라를 작게 하고 백성을 적게 하라.
使有什伯之器而不用，	열 배, 백 배의 효율을 가진 기구가 있어도 쓰지 않게 하고,
使民重死而不遠徙。	백성으로 하여금 죽음을 중하게 여겨 멀리 이사하지 않게 하라.
雖有舟輿，無所乘之；	비록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타야 할 곳이 없고,
雖有甲兵，無所陳之。	비록 갑옷과 병기가 있어도, 펼칠 곳이 없다.
使民復結繩而用之，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새끼를 꼬아 쓰게 하고,
甘其食，美其服，安其居，樂其俗。	그 음식을 달게 여기고, 그 옷을 아름답게 여기고, 그 거처를 편안히 여기고, 그 풍속을 즐기게 하라.
鄰國相望，雞犬之聲相聞，	이웃 나라가 서로 바라보이고, 닭과 개 소리가 서로 들려도,
民至老死，不相往來。	백성이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

▶ 해석 및 철학적 분석

80장은 도가의 이상 사회론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한 장으로, 노자 정치철학의 절정입니다. '소국과민(小國寡民)'이라는 네 글자가 그 이상향의 전모를 담습니다.

기술 문명 비판: "열 배 백 배의 효율을 가진 기구[什伯之器]"가 있어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기술 발전 자체의 거부가 아니라, 기술이 인간의 자연적 삶을 교란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이상향의 특징:

- 공동체의 규모가 작고 자급자족적
- 전쟁 도구가 있어도 쓸 일이 없음
- 문자 대신 결승(結繩) — 원시적 단순성으로의 회귀
-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삶(甘食·美服·安居·樂俗)

- 이웃 마을과 소리는 들려도 왕래하지 않는 자족성

해석의 논쟁: 이 장을 원시주의(primitivism)의 단순한 낭만화로 볼 것인지, 문명비판적 사유 실험으로 볼 것인지는 노자 해석사에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 핵심 용어 해설

핵심 용어	의미 및 철학적 함의
小國寡民 (소국과민)	작은 나라, 적은 백성 — 도가의 이상적 공동체 규모
什伯之器 (십백지기)	열 배 백 배 효율의 기구 — 고도 기술 문명 비유
結繩 (결승)	새끼를 꼬아 기록함 — 문자 이전의 원시적 단순성
甘其食美其服 (감기식미기복)	음식을 달게 여기고 옷을 아름답게 여김 — 족함을 아는 삶의 태도
雞犬之聲相聞 (계견지성상문)	닭과 개 소리가 들려도 왕래 없음 — 자족적 공동체

X. 제 81 장 — 도덕경의 결론 — 信言不美

▶ 원문 및 직역

원문 (原文)	직역 (直譯)
信言不美, 美言不信。	참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참되지 않다.
善者不辯, 辯者不善。	선한 자는 변론하지 않고, 변론하는 자는 선하지 않다.
知者不博, 博者不知。	아는 자는 박학하지 않고, 박학한 자는 알지 못한다.
聖人不積, 既以爲人已愈有,	성인은 쌓아두지 않는다. 이미 남을 위하였으면 자신은 더욱 있게 되고,
既以與人已愈多。	이미 남에게 주었으면 자신은 더욱 많아진다.
天之道, 利而不害;	하늘의 도는, 이롭게 하되 해치지 않는다.
聖人之道, 爲而不爭。	성인의 도는, 행하되 다투지 않는다.

▶ 해석 및 철학적 분석

81장은 도덕경 전체의 결론이자 종합입니다. 노자는 진리·선·지식의 세 가지 역설로 자신의 언어론, 윤리론, 인식론을 압축합니다.

세 가지 역설:

1. 언어의 역설: 진실한 말(信言)은 꾸밈이 없어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美言)은 수사로 치장되어 진실하지 않습니다. 도가적 언어관의 핵심입니다.
2. 선(善)의 역설: 진정으로 선한 자는 자신의 선을 변론하지 않습니다. 변론은 이미 결핍의 증거입니다.
3. 지식의 역설: 진정한 앎은 깊이에 있고 넓이에 있지 않습니다. 박학다식(博學多識)은 오히려 핵심을 가릴 수 있습니다.

성인의 역설적 풍요: 성인은 쌓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수록 자신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이는 도가의 경제 역설이자 나눔의 역설입니다.

마지막 두 구절 — 도덕경의 결론: "하늘은 이롭게 하되 해치지 않고, 성인은 행하되 다투지 않는다." 利而不害와 為而不爭—이 두 원리가 천도와 성인의 행동 원칙입니다. 이로써 도덕경은 우주적 원리(天之道)와 인간의 실천(聖人之道)을 하나로 통합하며 마무리됩니다.

▶ 핵심 용어 해설

핵심 용어	의미 및 철학적 함의
信言不美 (신언불미)	참된 말은 아름답지 않음 — 도가적 언어 역설
善者不辯 (선자불변)	선한 자는 변론 않음 — 자기 과시 없는 선의 본질
知者不博 (지자불박)	아는 자는 박학 않음 — 깊이 대 넓이의 인식론
聖人不積 (성인불적)	성인은 쌓지 않음 — 무소유의 역설적 풍요
利而不害 (이이불해)	이롭게 하되 해치지 않음 — 천도의 본질
為而不爭 (위이불쟁)	행하되 다투지 않음 — 성인의 행동 원리

XI. 73~81 장 종합 분석 및 결론

◆ 핵심 주제의 흐름

73~81장은 노자가 자신의 사상을 실천적 차원에서 종합하는 구간입니다. 이 장들의 논리적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73~74 장: 인간 권력의 한계 — 죽음을 관장하는 것은 천도(天道)이며, 인간이 이를 대신하려 하면 반드시 스스로 상처 입는다.
2. 75 장: 착취의 구조 비판 — 지배층의 탐욕과 유위(有爲)가 사회적 고통의 근원임을 인과적으로 분석한다.
3. 76~78 장: 유약(柔弱)의 우위 — 자연 관찰(살아있는 것은 부드럽다)에서 사회 원리(물이 돌을 이긴다)로 역설을 전개한다.
4. 77 장: 천도의 균형 원리 — 자연은 과잉을 덜어 결핍을 채우지만, 인간 사회는 역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회비판이 날카롭다.
5. 79 장: 원망의 해소와 천도의 공평성 — 사회적 갈등은 덕(德)의 선행적 유지로만 근본 해결이 가능하다.
6. 80 장: 이상 공동체론 — 소국과민(小國寡民)의 자족적 공동체는 도가 이상향의 최종 형태이다.
7. 81 장: 총결론 — 信言不美, 為而不爭으로 천도와 성인의 도를 동일한 원리로 귀결시킨다.

◆ 반복되는 도가적 역설 구조

이 9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철학적 구조는 '역설(paradox)을 통한 진리 제시'입니다. 노자는 상식적 판단을 전복시키는 방식으로 도(道)의 원리를 드러냅니다.

상식적 판단	도가적 역설	해당 장
강한 자가 이긴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76, 78장
지식이 많을수록 현명하다	아는 자는 박학하지 않다	81장
줄수록 적어진다	줄수록 더욱 많아진다	81장
강한 통치가 질서를 만든다	유위(有爲)가 난치(難治)를 부른다	75장
죽음의 위협이 복종을 만든다	민불외사(民不畏死)가 된다	74장
아름다운 말이 진실하다	신언불미(信言不美)	81장

◆ 최종 결론: 天之道와 聖人之道의 합일

도덕경 81장의 마지막 두 구절은 도덕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天之道，利而不害 / 聖人之道，為而不爭

하늘의 도는 이롭게 하되 해치지 않는다. 성인의 도는 행하되 다투지 않는다.

이 두 원리가 상징하는 것은 도가 철학의 근본입니다. 우주(天)와 인간(聖人)이 같은 원리로 움직일 때 비로소 이상적 질서가 실현됩니다. 73~81장은 이 결론을 향해 단계적으로 논증을 쌓아 올린 여정이었습니다.